10.27법난 기념관 건립 추진 '이상무'

2016년 정부 불교 예산 어디에 쓰이나?

새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5조 4천 948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불교계에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 템플스테이 운영과 시설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에 정부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반영된 문체부 예산은 6백 30여억 원이며 이중 10.27법난 기념행사에는 2억 원이 배정됐다. 종교를 초월해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와 불교계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알리는 템플스테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248억 원에 책정됐다. 관광산업과 이상무 사무관은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110억 원, 시설보수 지원에는 13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은 지난해 128억 2천 7백만 원서 21억 원이 증가된 149억 7천 2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신용선 종무실 사무관은 "사찰 보수의 경우에는 해당사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은 전통사찰 154곳에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27 법난 기념관 630억 원
템플스테이 248억 원 책정돼
방재 · 기록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 문화유산 보존사업 추진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은 1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2년과 같은 금액이다. 여기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됐다.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사업에도 50여 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에 18억 원, 불교전통문화 발굴과 전승사업에 12억 7천만 원,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을 위해 5억 원, 밀교총람편찬사업에 5억 원, 호국의 승군 연구에 3억 2천만 원(지속, 서산대사 제향포함)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역사문화관광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 6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종교문화활동 지원사업에는 총 50여 억 원이 투입된다. 이중 불교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2억 원, 진각종 70주년 기념사업비에 2억 원, 팔공산 승시 행사 운영비에 3억 원, 인성교육 지원비에 3억 원 등이 책정됐다.

신용선 종무실 사무관은 "이번에 책정된 불교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통문화유산 분야와 불교 분야 등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며 "순수한 불교계의 지원 예산은 예년에 비해 1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南北불교 "합심해 민족단합 이끌자"

조계종 · 조불련, 구랍 30일 '신년인사' 전달

남북 불교계가 병신(丙申)년 새해를 앞두고 서로에게 신년 인사를 건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구랍 30일 서신을 통해 '2016 새해인사'를 주고받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2015년은 남북불교도 사이에 연대와 단합의 기운이 한층 높아진 뜻 깊은 한 해였다"며 "민족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불교도 교류와 연대가 더욱 활발해지는 새해가 되도록 서로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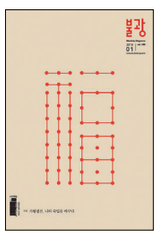
또한 강수린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불교도들의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통일의지를 다시 굳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질 새해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교도 사이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과 조불련은 2015년 3월 남북대표자회담(중국 심양), 10월 금강산 신계사 8주년 법회, 11월 남북종교인 모임(금강산)을 갖는 등 3차례 걸쳐 만났다. 박아름 기자

월간 〈불광〉 리뉴얼 '눈길'

1월호부터 연재 등 지면 디자인 변화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이 2016년 1월호(통권 495호)를 기점으로 잡지를 리뉴얼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집, 신규필자 연재 등 내부 구성부터 표지, 디자인, 종이 재질까지 전면 새로이 꾸몄다.



'독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불자로서 나와 세상에 대한 깊은 사유의 동기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감성으로 공감하고, 이성으로 사유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규 코너로는 불교계서 시도된 적 없던 사진인물 다큐 '어의운하(於意云何)', 원로 및 중진 · 중견 사진작가들의 사진으로 담은 불교 '천개의 눈', 방방곡곡 내려앉은 절집을 이광이 선생의 맛깔나는 글로 만나는 '이광이의 절집 방랑기' 등이 각각 신설됐다. 또한 농부철학자로 알려진 윤구병 선생, 불교적 경영의 방법을 소개하는 바른경영연구소 이언오 소장, 불교와 생태의 만남을 모색하는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최원형 소장, 자녀를 통해 불자의 마음수행을 돕게 해줄 마음자람원 김남선 대표가 신규 필자로 연재를 시작한다.

덧붙여, 신행 생활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보현행원품〉 사경지를 부록으로 실었다. 〈보현행원품〉은 대승경전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화엄경〉 별행본으로 화엄경 법문의 총결이라 할 수 있다. 한문으로 사경할 수 있게 했으며, 한글 해설을 달아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1월호는 '서분'과 '예경분'으로 시작했으며, 매달 진행되는 사경지를 모으면 〈보현행원품〉 전체를 사경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우수전법도량 16곳 표창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은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서 2015 우수전법중심도량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및 청소년과 새터민, 장애인 포교에 매진하는 사찰 200여 곳 중 우수 사찰 16곳 지도법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서울 영화사(지도법사 지성 스님) △서울 법장사(지도법사 여암 스님) △서울 옥천암(지도교사 원명심) △서울 통해사(어린이법회팀장 정재민) △의정부 회룡사(지도법사 법찬 스님) △김포 금정사(주지 명훈 스님) △예산 수덕사(지도법사 상준 스님) △전북불교회관(과장 이영배) △청주 용화사(신도회 문화원장 손경화) 등 9개 사찰이 송묵 스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우수 사찰로 선정된 화성 용주사와 속초 원각사, 영주 포교당, 창원 봉림사, 창원 정법사 마산 포교당, 밀양 용궁사, 순천 송광사 등 7개 사찰은 이날 수여식에는 불참했다. 이들 16개 사찰은 표창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피아노, 스피커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누적 성금 100억원 돌파

리퀘스트 방송 시초 24년간 전파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이 구랍 25일 1272회를 기록하며 누적된 성금규모도 100억원을 돌파했다.

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구랍 29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명실상부 불교계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1991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거룩한 만남'은 방송 횟수뿐 아니라, 지난 24년간 청취자들의 성금 약 100억원을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라디오 모금방송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룩한 만남'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청취자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내 리퀘스트방송의 시초로서 IMF 경제위기의 상황에도 불자들의 자비심과 응원으로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가피행을 펼쳐왔다.

한편 불교방송은 매월 초 서울시 마포구 다보빌딩 3층법당에서 지난 한 달간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한다. 신성민 기자

"韓日 협정, 피해자 빠진 졸속 합의"

나눔의집 등 종교 · 시민사회계 반발 '고조'

한 · 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안'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은 협상과정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피해 배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이 논란 대상이다.

종교 · 시민사회계 단체들은 이 협상안에 대해 △대독 사과에 그친 점 △법적 배상 등 후속조치 논의가 배제된 점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눔의집(이사장 월주) 등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과 범죄 주체가 일본정부란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 대상도 모호하다. 도저히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는 "한일 간 우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할 과제지만,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졸기듯 해결해선 안 된다. (합의문의)모호한 표현들은 벌써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 위엄 유지라는 점서 우려하는 점을

대독 사과, 진정성 없어
법적 배상 문제 거론 無
"'소녀상' 이전 절대 안돼"

인지, 관련단체와 협의 등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표명한 데 대해 "소녀상 이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협조하겠단 뜻이 아니냐"며 여론 반발이 빗발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은 수백억 원 예산의 위안부 지원 재단이 아닌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및 법적 책임 이행"이라면서 "정부의 졸속합의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했던 시민들 노력이 폄하됐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일 정부가 각각 "(협상안 이행을 전제조건으로)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향후 각 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서 동 문제에 대해 비난 · 비판을 자제한다"고 약속한 점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노력을 물리적으로 자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양 정부 간 합의가 그간 민간 노력을 무력화시켰다"면서 "특히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 이전을 두고 정부가 관여하겠다 말한 것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겠단 말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의 이옥선(87) 할머니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정식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1종주거지역 및 2차선 도로에 접한 –

사찰 농원으로 최적합한 땅! – 과천토지 매각!

〈매각지 인접 시세가〉 1,500~3,000만원 (공시지가: 700~800만원)



강남 부자들 주목하는 과천 명품토지 –

4호선 선바위역 500m

3.3㎡당 110~120만원
(분양단위 : 330㎡)





• 매각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지목 : 임야)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이전 책임등기 : 임채일 법무사)

■청약금: 100만원 /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청약신청 (일요일 공휴일 상담) 02)2058-0132